

# “그저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달라진다”

## 소련인 한국어 교수가 가 본 교보문고

### 유리 니콜라이비치 마주르

연세대 교환교수

내가 처음으로 교보문고란 이름을 알게 된 것은 지난 '88년 서울올림픽대회에 통역관으로 참가했던 한 제자를 통해서였다.

모스크바대학교 부속 아시아·아프리카대학 한국과 졸업생인 나움치크씨는 서울올림픽 기간중 한국의 곳곳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인상에 깊었던 것이 바로 이 서점이었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던만큼 꼭 서점에 가고 싶었고, 한국에서 가장 큰 서점이라며 소개받아 간 그곳에서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했다. 우선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상상을 넘어선 엄청난 규모였었고, 서가마다 빼곡히 들어찬 책, 발디딜 틈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한번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웬종일 서가를 누비며 책이며 잡지들을 질릴 때까지 구경했었다고 자랑했다. 우리의 경우 12시~2시까지 점심식사시간은 잠깐 문을 내리고 대체로 오후 5~6시만 되면 문을 닫는 반면 한국의 서점은 저녁 늦게까지 문을 열어두는 것이 그에겐 꽤 인상적이었던 모양이다.

그는 귀국길에 한국어학을 전공하는 나를 위해 「표준국어문법론」(남기심·고영근 공저)을 선물로 사다주었고, 그러면서 “교보문고는 그저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차원이 달라진다”며 침이 마르도록 감탄을 하는 거였다.

지난해 8월, 내게도 나움치크가 “한국에서 가장 인상깊었다”던 그 서점을 들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연세대 노어노문과 교환교수로 서울에 머무르게 된 것이다. 마침 '89년 모스크

바 국제도서박람회 때 만나 알게 되었고, 그런 인연으로 내가 재직중이던 모스크바대에 많은 한국어 책을 기증해준 김병익(문학과지성사 대표)씨의 안내로 교보문고에 갔었다. 그곳에서 나는 나움치크가 그렇게 감탄하던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고전문학(뽀슈킨,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고골리, 투르게네프, 체호프 등), 소련현대문학(고리끼, 솔제니친, 나야프소스끼, 블로끄 등)을 한국에서, 그것도 그렇게 많이 번역돼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고, 또 반가웠다.

'90년 11월 아내 이와노바 워뜨리나(소련과 학원 동방학연구소 한국문학연구소)가 3개월 예정으로 이곳에 왔을 때 나는 아내를 이끌고 다시 교보문고에 갔다. 우리는 책으로 꽂 찬 서가를 한가롭게 거닐며, 새로 나온 한국소설책 몇권을 샀다. 유감스럽지만, 우리나라(소련) 서점판매원들은 책을 오랫동안 넘겨보는 독자·구매자를 좋아하지 않아서 간혹 신경질적이기도 한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 편한 마음으로 구경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와는 사회체제가 다르고, 출판과정 유통구조 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비교할 순 없으나 종이의 질, 수준높은 장정, 다양한 중수의 책들은 우리 부부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국민학생 중학생 대학생 일반인 할것없이 책고르기에 골몰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놀라운 독서열이 부럽기만 했다. 이것은 대체로 한가로운 우리나라의 서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풍경이었다.



교보문고는 나같은 외국인을 참으로 놀라게 하고 격동시키는 서점이다. 문학서적, 기술과학, 자연과학, 인문과학, 예술서적 할것없이 중수와 양이 대단히 다양하고 풍부하다.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언어권의 신간도서들이 신속히 수입 공급되고, 독자의 필요에 따라 세계 어느 나라의 책도 주문할 수 있고 각종 도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아주 부럽다.

교보문고를 들릴 때마다 어린아이들의 맑은 눈빛에서, 서가와 마주선 젊은이들의 어깨에서 한국의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던 것은 한 이방인의 괜한 칭찬이 아니다.

교보문고 10주년을 맞아 남다른 사명을 지고 이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축하를 전하고 성공이 있기를 바란다.

(마주르(67) 교수는 모스크바종합대학교 부속 아시아·아프리카대학에 재직중인데 지금은 연세대 노어노문과 교환교수로 서울에 와 있다. 1950년 모스크바동양대학 극동학부 한국과를 졸업한 그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속담’ ‘주시경과 현대한국어학’ ‘한국어단어의 현대론적 분석, 몇가지 문제’ 등 수편의 논문과 「노한사전」 「한국어격변화」 「한국어와 한글」 「한노소사전」 등 공저 및 저작으로 펴낸 책도 여러권이 된다. 부인 이와노바 워뜨리나씨 역시 현재 소련과학원 동방학연구소 한국문학연구소로 재직중인데, 한국인소설 분야가 주전공이며 최근에는 신채호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 두 부부가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소련인들이다.) <편집자 주>

## 만화홍보그룹



만화홍보  
**현대기획**  
TEL. 335-3357

# 만화로 익히는 직장인의 예절



직장인의 고운 맵시  
바른말씨는 곧 그 회사의  
품격이며 얼굴입니다!!

**주요내용**  
직장인으로서의 마음가짐 / 기본자세와 동작  
바르고 요령있는 대화예절 / 교양있는 직장인의  
매너 / 친절하고 세련된 전화응대 / 신뢰받고 친근감  
있는 고객응대 / 옷차림 몸치장 요령 / 요령있는 출  
장, 해외여행 / 현대인의 식사예절 / 세계의 매너와  
에티켓 / 호칭 인사예절 / 스포츠 매너 / 공공예절 / 경  
조사 / VIP에 대한 예절  
**도서출판**  
**현대미디어**  
TEL. 323-4483 338-2779  
FAX. 334-7958

■ 하는일 : 각종 만화홍보책자/기업문화  
상품광고/카타로그·팜플렛/정치홍보  
물/출판물 컷 등  
4×6배판 160쪽 본문 2도인쇄 값5,000원  
● 단체구입시 표지에 상호, 회사로고 넣어드림  
● 단체주문, 책문의 (02) 323-4483  
(교보문고, 을지서적, 종로서적 및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총판 : 진명서적 272-5871)